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철도건설공사 입찰 규제’ 완화

-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5개 기준 개정... 이달부터 적용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협력사 간담회 및 자체 발굴 등을 통해 도출된 계약관련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과 상대적 계약 약자인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규제개혁 사항은

- 고의·과실에 의한 관련담당자 징계처분 원인 제공업체에 대한 감점 조항을 폐지
- 타기관의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감점을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1~-3점으로 차등 적용
- 정부권장 우선구매제품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금액을, 현재 용역 1천만원, 구매 5백만원에서 국가계약법상의 용역·구매 각각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또한,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의 미참여 감점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여 '16년 말까지 운영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해, 부계약자의 경영상태 통과 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수준으로 완화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시공실적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변경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계약처는 규제완화 외에도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신설
- 입찰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 적용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가 입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미만일 경우 입찰가격을 80%로 반영
- 사업수행 실적이 저조한 창업초기 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기로 했다.

계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전문)업체의 입찰참여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사1공구 입찰제도’ 전면 개편

- 철도 건설공사는 적용 폐지, 기술용역은 입찰제한 폐지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 오던 1사1공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난 7일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1사1공구 제도는 지난 2009년 철도예산이 대폭 증액될 당시 특정업체의 편중낙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 편중낙찰 우려가 거의 없는 2)철도건설공사의 경우 1사1공구 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 3)기술용역의 경우 입찰제한은 폐지하고,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편중낙찰 방지를 위한 낙찰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1) 1사1공구 제도 : 동시 입찰공고 시 중복낙찰 금지제도
 - 2) 철도건설공사 : 토목,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 공사 등 철도건설공사
 - 3) 기술용역 : 설계, 감리 등 용역

계약처는 제도의 운용성과 및 한계점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불리한 측면 등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기관 및 건설사업 유관 협회의 의견수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2회에 걸친 내부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도출했다.

계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철도 건설산업에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사업에 대한 건전한 경쟁 활성화로 철도의 품질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위한 결의 다져

- 국토부 등 29개 철도 유관기관 ‘협의체’ 발족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지난 10일 대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국토부 등 5개 공공기관 및 3개 철도관련 대학, 21개 철도관련 업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운영 협의체’ 발족 행사를 가졌다.

철도기술의 국산화 및 미래 철도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철도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철도종합시험선로에 대한 협의체가 발족되면서 성공적인 시험선로의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협의체 의장인 이 원장은 인사말에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해당분야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Know-How와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의견을 제시해 세계 최고의 철도종합시험선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시험선로 구축 단계부터 준공 후 운영단계 전반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자문을 통해 시험선로에 반영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